분과발표_교육 1

교회의 열매란 무엇인가?
기독교생활공동체의 부활을 위한 성경적 변증

이창국 (주님의 교회 목사)

Ⅰ. 서론: 문제의 제기

우리는 교회 (혹은 신앙) 생활의 열매를 전도한 사람의 수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곧 100명을 전도하였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마 7:15-29에 소개된 예수님의 가르침을[1] 살펴보면, 기독교의 이러한 전통적 사고방식이 과연 바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일어남을 막을 길이 없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그 나무의 열매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의 어떠함을 말해 준다.

그러면 열매란 무엇이며, 나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란 사람의 됨됨이며, 열매란 그 사람의 행위이다. 좋은 나무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며, 좋은 열매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행위를 말한다.[2]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좋은

---

1)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2)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눅 8:15)

열매를 맺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자신들의 행위가 과연 자신들의 고백과 믿음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독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열매 맺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으려면, 우리는 먼저 믿음이 행위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정확하고 바른 진단이 없이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

교회의 믿음이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면의 까닭이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신학적인 방면의 이유이다. 기독교가 내세우고 있는 구원의 핵심원리가 바로 이러한 애석한 현상에 깊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실제적, 현실적 방면의 이유인데,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표준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교육시키며, 지켜보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내부적인 요인이고, 둘째는 외부적인 것이다. 물론 둘 다 중요하고 큰 문제이긴 하지만, 첫째 문제가 더욱 근원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외부적 영향력의 문제가 그토록 크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까닭도, 내부적으로 그 결속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비롯되고 초래된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먼저 열매 없음의 신학적 뿌리를 살펴보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나아갈까 한다.

III.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까닭: 사도 바울의 진단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였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아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아이러니 앞에 당황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답을 찾고자

기도하고 고뇌하였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 곳곳에서 바울의 이러한 고뇌와 그가 도달한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주장하며 베풀고 있는 구원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명제였다. 이 명제는 바울서신 곳곳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엡 2:8-9)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갈 3:9-12)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 2:16)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롬 9:31-32)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롬 3:27-28)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롬 11:6)

따라서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명제가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고 초대하는 그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성격과 정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Ⅳ. 바울의 명제에 대한 두 가지 해석방식

이 명제에 대한 해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곳에서는 그 둘을 편의상 1형식과 2형식이라 구분하여 부르기로 한다.

1형식적 이해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적인 대립구조로 파악한다. 즉 믿음을 택하면 구원을 받지만, 행위를 택하면 버림을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

2형식적 해석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어느 것이 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담긴 인과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행위가 잘못된 까닭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므로, 행위가 잘못되었을 경우, 믿음을 재검토하고 바로잡아나가려고 해야지, 단순히 행동만 고치려고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V. 성경의 입장

그렇다면 성경은 두 가지 형식의 이해 중 과연 어느 형식을 지지하고 있을까?

우선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 측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지, 서로 분리되어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믿음과 행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입장인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마 7:16-20)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약 2:20-26)

샘이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약 3:11-12)

둘째로 성경은, '행위'란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검토하여 바로잡으려고 해야 하며, 단지 행위만 고치려 드는 것은, 회칠하는 것과 같이 가증되고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막 7:20-2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 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마 23:25-26)

VI.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성경의 처방

만약 우리에게서 행위라는 열매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해 내린 성경의 처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열매를 맺도록 좀 더 노력하고 애써보는 것이다. 좋은 나무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지만, 좋은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당장, 그리고 모든 나무가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나무 자체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풍토와 기후가 순조로워야 하며, 병해충과 외부적 충격들을 방어하고 이겨내야 한다. 또한 땅에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등, 그 밖에도 수 많은 변수들이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여러 변수들 중 어느 한 가지에 문제가 있으면, 그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한편으로 이러한 여러 변수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

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눅 13:6-9)

다른 하나는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 열매로 알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열심히 돌봄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고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날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즉 우리에게 만약 행위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믿음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나감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갱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렘 18:1-4)

교회에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없을 때, 우리는 교회의 행위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지 근원적인 성찰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바울의 신학적 명제에 대한 해석의 두 가지 형식 중, 제1형식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배타적이며 양립불가적 대립구조로 파악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결과, 행위를 금기시하고 저주하며 추방해 버림으로써, 스스로를 열매 없는 나무로 만들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VII. 1형식적 해석이 가져오는 폐해

교회가 1형식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는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단체가 된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렘 5:2)

둘째로,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만,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에 먹칠을 한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딛 1:16)

셋째로, 믿음과 행위의 연결성을 끊어놓은 결과, 믿음이 우리 행위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엉뚱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주인 행세를 한다. 예컨대 이적이나 표징,[3]

3)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

재물, 행복, 성공 등과 같은 긍정의 신학, 혈연,[4] 지연,[5] 학연이나 집단, 그리고 이 세상의 학문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들이 바로 그들이다.

넷째로, 우리가 혹 우리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우리의 행위를 반성하고 문제 삼는 데 그칠 뿐, 우리의 속 마음과 믿음을 반성하고, 바꾸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게 한다. 즉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다.

VIII. 2형식적 해석의 유익

우리가 만약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 2형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우선, 그동안 적대적이며 단절되어 막혀있던 믿음과 행위가 화해하고 소통이 되어 그 정상적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믿음도 살고, 행위도 사는 상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신념의 영역과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경험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검증됨으로써, 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확증해 보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행위의 검증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불확실하고 미숙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들고 성숙시키며 발전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행위 또한 자신의 참된 주인을 찾게 됨으로써 일관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믿음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지니고 계속 성장해나가며 그 열매를 더하여 가게 될

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신 13:1-4)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마 7:21-23)

4)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 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신 13:6-9)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마 10:34-37)

5)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신 13:12-15)

것이다. 결국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요, 행위 또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IX. 결론 : 2형식적 해석의 도전－기독교적 생활공동체

교회는 그동안 잃어버리고 방치하였던 행위의 영역을 탈환하고 회복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영역 뿐만 아니라, 행위의 영역까지도 관리하고 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새롭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 이 둘은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그동안 이 둘을 억지로 분리시켜 떼어놓았으며, 믿음만을 돌보고 행위는 도외시함으로써, 결국 믿음과 행위 둘 다 건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말았음을 깨닫고 돌이켜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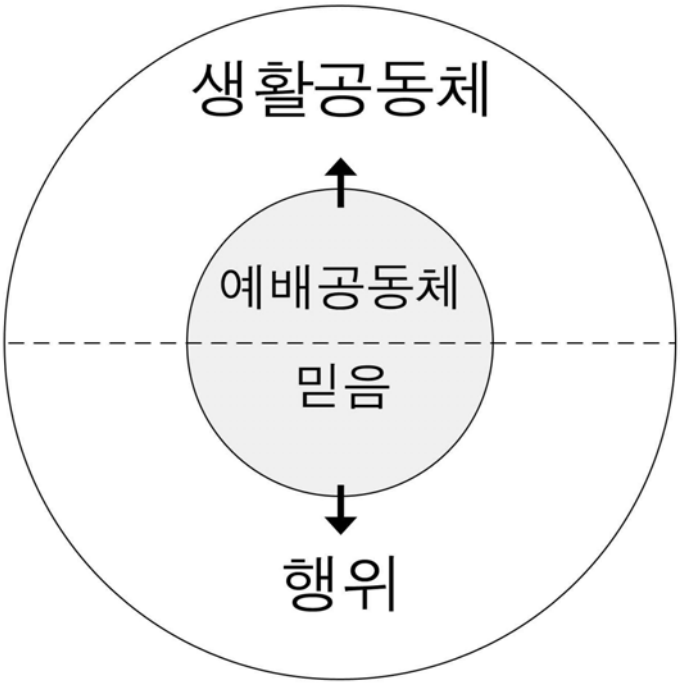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가 키우고 지켜온 예배공동체는 예배와 신앙교육을 통하여, 믿음을 전하고 고백하고 유지하고 체계화 하는 일을 주로 전담해왔고, 또 사실 그 일에는 상당히 효율적인 조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예배공동체를 통하여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법들을 행하려면, 우리는 그곳을 나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야만 하므로, 실상 예배공동체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우리 행위를 지도하고 이끌고 발전시켜나가기에는 적합한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일상 생활 속에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법을 실천하고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공동체, 즉 삶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혼자서 골방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예배공동체를 조직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표현하고 전파하는 일에 그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자서도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서 합당한 행위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생활공동체를 조직하여 함께 그 행위를 이루어나가야 할 까닭은,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더욱 풍성하고 충실하고 온전하도록 하는 일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한 2형식적 이해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면, 예배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예배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되,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구현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돕는 기독교적 생활공동체 수립에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견해를 알기 쉽게 도표와 그림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나 무	열 매
믿음	행위
하나님의 뜻과 법을 배워 앎	배우고 믿고 아는 바를 행함
예배, 신앙교육	삶, 일상생활
예배공동체	생활공동체

〈표1: 나무와 열매 비유의 의미〉



〈그림1: 확장된 교회의 모습〉